

# 로마는 비전을 수립한다 - 넘버원

## 사적인 해석

Jeff Pippenger

2024-06-28

그 때에 많은 이들이 남방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또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이 환상을 이루려고 스스로 높아질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기독교의 맥락에서 '교리'라는 단어는 성경의 정립된 진리를 가리킨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여러 단체들은 자신들이 성경적 교리라고 규정하는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절대 진리'와 '다원주의'의 구분은 이 시점에서 이번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 주제다.

이에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8:37-38.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음성이며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 받은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의 원칙—곧 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자신의 신앙을 뒷받침할 근거도, 그 사안의 진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없이 믿는 이들이 많다. 자신들의 선입견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이 제시되면,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인과를 따라 이성적으로 따져 보지 않으며, 그들의 신앙에는 진정한 기초가 없고, 시련의 때가 오면 자신들이 모래 위에 세워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 대한 자신의 현재의 불완전한 지식에 만족하여 이것이 자신의 구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치명적인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오류를 분별하고 진리로 둔갑시켜 유포된 모든 전통과 미신을 정죄할 수 있도록 성경적 논증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많다. 사탄은 하나님의 예배에 자신의 사상을 들여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함을 부패시키려 하였다. 현재의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한때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옛 표준을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지근하고 무관심하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의 참된 덕을 자신의 경험 속에 짜 넣어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게으르고 부주의하다. 성경 구절들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생길 때,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았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확고하지 않은 이들은 진리에서 떠나버린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신적 진리를 부지런히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켜, 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많은 지식을 주장하고 자신의 상태에 만족해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때와 다를 바 없이, 사역에 대한 열심도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수와 풍성함을 자신의 영혼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의의 태양의 광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의 약속들과 예언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위에 영광의 밝은 광선을 비춘다. 그러나 이러한 장엄한 진리들은 분명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 교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입증하며 옹호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에게서 누구 하나 홀로 서야 할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공의회들 앞과 수천 명 앞에 불러 나가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진리를 위해 취해 온 모든 입장에 대해 가장 혹독한 비판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옹호하는 교리를 왜 믿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살아 있는 말씀을 면밀히 탐구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888년 12월 18일.

'수천 명' 앞에 서게 되려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수호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텔레비전이나 웹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해 진리를 변호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십사만 사천 명이 전하는 증언을 수천 명이 어떻게 시청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옹호하는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밝혀 준다.

"교인들은 각자 시험을 받고 검증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아마도 각기 따로, 홀로, 위원회와 법정 앞에서 발언하도록 불러갈 것이다. 이런 위기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경험을 그들은 얻기를 소홀히 했고, 낭비된 기회와 소홀히 한 특권에 대한 회한으로 그들의 영혼은 짓눌린다." 증언, 제5권, 463쪽.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십사만 사천의 수에 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를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설명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시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류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논쟁이나 동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건전한 교훈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진리와 오류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경을 연구해도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지 않고,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성경을 찾아보게 만들 만한 의견 차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전통을 고수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현재의 진리를 안다고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심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현시대를 위한 사역에 대해 바른 평가를 하지 못한다.

시련의 때가 오면, 지금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견지해 온 입장을 검토해 보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점이 많음을 발견하게 될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큰 무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믿는 바를 이해한다고 당연시하는 이들이 많으나, 논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서 떨어져 홀로 서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해야 하게 될 때, 자신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람에게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지혜 대신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일이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깨우실 것이다. 다른 수단이 효과가 없으면,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체질하여 쪽정과 알곡을 가를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신다. 이 때에 합당한 귀한 빛이 임하였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 눈앞에 닥친 위험들을 보여준다. 이 빛은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들을 가장 엄밀하게 검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기도로 진리의 모든 맥락과 입장들을 철저하고도 끈기 있게 탐구하기를 원하신다. 믿는 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는지에 대한 추측과 모호한 생각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시험의 때가 오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공의회 앞에 서게 될 때, 그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논의하라, 논의하라, 논의하라.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주제들은 우리에게 살아 있는 현실이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조항으로 여기는 교리를 변증할 때에는, 완전히 타당하지 않은 논거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한다. 그런 논거는 반대자를 침묵시킬 수는 있어도 진리를 존중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반대자를 잠재울 뿐 아니라 가장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에도 견딜 수 있는 건전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스스로 토론가로 훈련해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할 큰 위험이 있다. 반대자와 대면할 때에는, 단지 신자에게 확신을 주려는 데 그치지 말고, 그의 마음에 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방식으로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진지하게 힘써야 한다.

인간의 지적 진보가 어떠하든, 더 큰 빛을 얻기 위해 성경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는 한순간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각자 예언의 학생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빛줄기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첫 빛살을 포착해야 하며, 기도로 연구함으로써 더 분명한 빛을 얻어 그것을 다른 이들 앞에 제시할 수 있다. 증언, 제5권, 708쪽.

결국 14만 4천을 이루게 될 "예언의 학생들"은 머지않아 일요일 법령 위기와 박해를 가져올 세상 권세들과의 대면에 앞서 "개별적으로 시험되고 입증될" 것이다. 신실한 자들은 먼저 하나님에 의해 "깨워질" 것이다. 잠자는 처녀들은 지체의 때 동안 빠졌던 잠에서 "깨워질" 것이다. 만약 그들이 2023년 7월 이후로 보내 온 기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별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도록" 허락하실 것이며, 그것이 키질 과정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를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키질 과정에 있다.

현대 로마의 정확한 정체 규명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봐 온 이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 현대 로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권이 현대 로마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앞의 두 입장이 모두 틀렸고 다니엘서 11장 14절에서 자신을 높이고 넘어지며 환상을 확립하는 '다니엘의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권세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나는 현대 로마가 교황권인지 아니면 미국인지에 관한 이견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강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운동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가운데 이 논쟁을 일으키셨다. 나는 이견의 초점이 현대 로마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리는 것보다,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데 더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견은 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그분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의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쟁은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이다.

이 논쟁은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로 표현되는 세력이 누구인지의 규명뿐만 아니라, 논쟁의 양측 모두가 지지한다고 공언하는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한다.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과 관련된 예언적 규칙에는 밀과 가라지를 가르는 선별 과정의 일부가 될 특별한 예언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이 논쟁에서 오해되고 있다고 내가 주장하는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의 세 가지 요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언의 삼중 적용이다.

결국 다니엘서 11장 14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수하는 이들은 그들의 교리적 입장이 사사로운 해석에 근거하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서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을 주의하듯, 날이 새고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잘하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19-21.

14절을 둘러싼 논쟁에서 내가 "사사로운 해석"이라고 이해하는 한 사례는 The Great Controversy에서 찾을 수 있다.

"안식일이 기독교계 전반에서 특별한 논쟁점이 되고, 종교 및 세속 당국이 합세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게 되면, 대중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질기게 거부하는 소수는 온 세상의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맞서는 소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온 나라가 혼란과 무법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될 것이다. 수세기 전 바로 이와 같은 논거가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다. 간교한 가야바가 말하였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고 온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1:50. 이 논거는 결정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며, 마침내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겨냥한 칙령이 내려져, 그들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을 죽일 자유를 백성에게 부여하게 될 것이다. 구세계의 로마주의와 신세계의 배도한 개신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 비슷한 길을 갈 것이다." 대쟁투, 615.

"Christendom"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 공동체, 또는 기독교인이 다수인 국가와 문화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흔히 기독교가 지배적 종교이며 문화, 법, 사회 규범에 크게 영향을 미친 세계의 지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Christendom"은 신자 수, 문화적 영향, 역사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기독교의 전 세계적 범위를 포괄한다. 엘렌 화이트 CD-ROM에 존재하는 중복을 제거하지 않으면 "Christendom"이라는 단어는 176회 등장한다. 지리적으로 화이트 자매는 "Christendom"이 일반적으로 유럽과 아메리카를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화이트 자매의 맥락에서는 유럽은 구세계로, 아메리카는 신세계로 규정된다.

그러나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상징된 그 나라는 자신을 세우기 위해 다른 권세들을 전복하는 대신, 이전에 점유되지 않았던 영토에서 일어나 점차적이고 평화롭게 자라나야 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세계의 붐비고 서로 다투는 민족들 사이—곧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방언'이라는 요동치는 바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서방 대륙에서 찾아야 했다.

"1798년에 신대륙에서 어느 나라가 권세를 얻으며 일어나 힘과 위대함을 예고하고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었는가? 그 상징의 적용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예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분명히 미합중국을 가리킨다.' 위대한 논쟁, 441."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구세계의 로마주의와 신세계의 배도한 개신교"라는 표현이 "구세계의 로마주의"를 암흑시대의 교황권으로, 그리고 "신세계의 배도한 개신교"라는 구절로 표현된 미국(배도한 개신교)을 현대의 로마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Old"는 과거의 역사로, "New"는 현대 또는 현재의 역사로 정의된다. 그러한 적용은 화이트 자매가 그리스도교 세계와 구세계·신세계에 관해 확립해 온 이해를 왜곡한다.

그 문장을 과거와 미래의 역사 관점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자매가 의도한 의미와 직접 모순되는 '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Old World'는 과거의 역사를, 'New'는 현대 또는 현재의 역사(New)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 본문에는 "추구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주의와 배도한 개신교는 "모든 신성한 계율을 존중하고 지키는 이들을 향해 유사한 노선을 취할 것이다." 그 본문에서 구세계는 유럽을, 신세계는 아메리카를 가리킨다. 화이트 자매는 전 세계가 일요일 법령의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주의가 박해를 주도하고 아메리카에서는 배도한 개신교가 박해를 주도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메리카와 유럽은 "기독교 세계"로 규정된다. 로마 가톨릭주의와 배도한 개신교 모두가 "모든 신성한 계율을 존중하고 지키는 이들을 향해 유사한 노선을 취할 것이다."

"will pursue"는 두 권세가 취할 미래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구세계의 로마 가톨릭주의가 암흑시대의 교황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법상 불가능하다. 두 권세가 행하는 박해는 미래 시제이다. 그 어구의 정의는 "will pursue"로, 어떤 것을 달성하거나 획득할 의도로 그것을 따라가거나 추적한다는 뜻이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목표나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로 헌신하는 미래의 행동을 함의한다.

이 표현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녀는 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것이다," 즉 그녀는 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는 공학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고등교육기관에서 공학을 공부할 생각임을 나타낸다. "그 팀은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다," 이는 팀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작업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들은 그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즉 불만을 해결하거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will pursue"는 미래에 특정한 목표나 결과를 달성하려는 결단력, 헌신, 그리고 명확한 의도를 함축한다.

구세계의 로마주의가 이미 지나간 역사라고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사적 해석은, 그 후에는 예언의 삼중 적용을 잘못 적용한 주장을 떠받치는 발판으로 다시 사용된다. 그 주장은 로마의 삼중 적용이 먼저 이교 로마, 다음으로 교황 로마, 그리고 세 로마 중 셋째로서 미국을 나타낸다고 본다. 매우 유사한 잘못된 적용이 2001년 9월 11일 직후, 한 집단이 요엘서를 둘러싸고 그 운동에서 분리될 때 사용되었다.

그 논쟁은 캐나다에서 열린 한 캠프 집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세 가지 화의 삼중 적용을 요엘서에 도입하여 셋째 화의 이슬람이 1장 6절에서 그 땅을 치러 온 민족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 민족은 교황 로마이며, 그 민족이 이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적 해석이 도입되었다. 세 가지 화의 삼중 적용은 이슬람을 2001년 9월 11일의 세력으로 확립해 두었고, 새로 나온 사적 해석은 요엘서 1장의 교황권이 실제로는 이슬람이라고 주장했다. 요엘서에서 교황권을 올바르게 식별한 것을 거부하는 사적 해석은 세 가지 화의 잘못된 적용으로 뒷받침되었다. 이제는 교황권을 제쳐 두고 미국으로 대체하는 사적 해석이 도입되고 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장차도 있을 것이요, 이미 행한 것이 장차도 행해질 것이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느니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우리 이전의 옛 시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9, 10.

말세의 논쟁들은 옛 논쟁의 반복을 포함하며, 다니엘 11장에는 유라이어 스미스가 북방 왕의 상징에 자신의 사적 해석을 적용한 논쟁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니엘 11장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오직 어둠만을 낳았다. 이 마지막 때에 반복되는 논쟁들은 확립된 진리에 사적 해석을 적용할 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 특히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스미스가 그의 책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한 일이다. 이것이 요엘서와 관련된 논쟁에서도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또한 '대쟁투'의 한 단락을 가지고 "Christendo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상 일반과 엘렌 화잇의 저술 속 정의를 회피하고, 'will pursue'라는 표현이 미래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규정하는 문법의 기본 규칙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 방식이 동원된다. 그런 관점에서 '구세계'가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교황권의 역사라는 잘못된 개념이, 예언의 삼중 적용의 정의에 대한 확립된 이해에 반대하는 논증에 사용된다.

예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취되리라 명시하신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차례로 이루어질 것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은 제자리에 서 있다. 요한도 제자리에 서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다니엘서를 열어 주셨고, 이로써 다니엘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 성취의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크고 엄숙한 사건들에 관하여,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증언한다.

역사와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오류 사이에 오래 지속되어 온 투쟁을 묘사한다. 그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오래된 논쟁들이 되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예언을 믿고 성취하는 일에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 참여해 온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처음 품었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바위처럼 굳건히 서야 한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9쪽.

쉽게 입증할 수 있듯이, 화잇 자매는 바울의 '그들의 확신의 시작'을 재림주의 기초적 진리들로 규정하고 있다. 밀러주의자들은 '네 백성의 강도들'을 교황권으로 가르쳤고, 1989년 이후로 14만 4천의 운동은 밀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상징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거듭 확인해 왔다. 이제 '네 백성의 강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는 이미 확립된 예언적 상징을 잘못 규정하여 미래 위에 세워진 예언적 모형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오래된 논쟁을 되살렸다. 그것이 스미스의 개인적 해석이든, 요엘 1장에 나오는 그 나라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든, 아니면 미국을 현대 로마로 식별하는 것이든, 이 세 가지 오류는 모두 말세의 교황 로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공격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지 살 것인지를 식별하게 하는 예언적 이상을 확립하는 그 상징 자체를 공격한다.

장차 유럽의 로마주의와 아메리카에서의 배도한 개신교는 거룩한 역사 내내 그래왔던 것처럼 안식일 준수자들에 대한 박해를 "추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일깨우실 것이다. 다른 방법이 실패하면,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들을 키질하여 쪽정리와 알곡을 가를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신다. 이때에 합당한 귀한 빛이 임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 바로 앞에 닥친 위험들을 보여준다. 이 빛은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입장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모든 관련된 점들과 입장을 철저하고 끈기 있게 탐구하기를 원하신다. 믿는 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추측과 모호한 생각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일꾼들, 299.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이어가겠습니다.